

조영주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Youngjoo Cho

Mild
Depressive
Episode

인사말

서울시립미술관은 2008년부터 역량 있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는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왔습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본 프로그램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이라는 명칭 하에 기존에 시각예술에 국한되어 있던 지원 범위를 다원예술까지 확장하여 동시대 미술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욱 실험적이고 다양한 지층의 재능있는 신진작가들을 지원하고자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은 신진작가 양성과 미술계의 새로운 장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전시를 통해 성장한다는 신념하에 상대적으로 전시기회가 어려운 젊은 작가들에게 개인전을 개최할 수

1

있도록 전시장 임대료, 인쇄료, 홍보료, 작품 재료비, 전시장 구성비 등 실질적 전시 경비 일체를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술관 큐레이터들의 전시 컨설팅을 통해 전시의 완성도를 높이고 워크숍(작가와의 대화)을 개최하여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젊고 유능한 작가들이 활발히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작가들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발판의 역할을 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 작가들의 행보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2

감사합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4

Greetings

i

entire cost required for holding a solo exhibition, from the exhibition hall rental to the publications, PR, and materials cost. In addition, we also aim at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the quality of exhibitions through professional consultations with expert curators and boost morale among young artists by helping them host workshops where they can converse with art lovers.

SeMA will continue to commit ourselves to its long-term goal to provide talented young artists with opportunities to devote their work, and become a reliable foothold for them to continue to develop their artistic capability.

Finally, we hope you devoted to continue to offer your encouragement and support for the aspiring artists who arrived here through fierce competitions.

iii

Seoul Museum of Art (SeMA) has operated a program aimed at finding talented young artists and providing supports for them since 2008.

For this year's *Emerging Artists Program*, SeMA expanded its support, which has been limited to visual arts, to the interdisciplinary arts, thus reflecting the trend of the contemporary art world. The new movement represents our strong will to support talented young artists committed to new experimental activities of art.

The goal of the *Emerging Artists Program* is to nurture talented young artists and create a new space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art world. Believing that the artists grow with opportunities to exhibit their works to art lovers, we support young talented artists with substantial sums of money that can cover the

ii

Thank you.

Kim Hong-hee
Director, Seoul Museum of Art (SeMA)

iv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외상적 경험과 반복되는 스트레스는 뇌가 기능하는 방식을 바꾸어 버린다. 사고하는 뇌는 상황을 평가하여 위험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한 인간이 출생해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일들이 특별하게 기억되거나, 심지어 트라우마가 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경험들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지속하게 된다. 예를 들면, 아주 어린 시절에 받은 개의 위협에 대한 공포는 어느 정도 자랐거나 어른이 되어서 받은 개의 위협에 대한 공포보다 그 강도가 훨씬 크다. 뿐만 아니라, 어릴 때 개의 위협을 받을 당시의 상황이 뇌에 사진처럼 찍혀, 개와 상관 없는 상황이나 대상, 심지어 그 상황과 관계되는 것들에게 까지 공포를 느끼게 된다. 심하게는 개와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관

두 생존을 위한 뇌의 반응이라 할 수 있다.

봄이 시작되는 3월 어느 날, 깊은 슬픔과 무기력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30대의 한 여자가 찾아왔다. 몇 달 전에 실어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한 남자와 지냈던 행복했던 시절, 그와의 데이트, 유학생살의 기쁨 등을 얘기했다.

상담의 과정을 통해 그녀의 무의식 세계 중 한 부분을 볼 수가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었고, 그 속에서 버려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불안감은 어린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를 순응하는 아이로 만들기도 하고, 때론 상황과 맞서는 아이로 만들기도 했다.

최초의 남성인 아버지와 그녀가 사랑한 한 남자는 그녀의 삶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클로

계단질을 시도하기도 한다.

트라우마는 사람마다 취약성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능력발달을 지연시키고 바깥에서 오는 자극들에 과도하게 과장을 맞추어 일상의 일에 집중하기가 어렵게 만든다. 트라우마와 관련된 자극들을 회피하거나 일반적인 반응에서 무뎌지게 하고, 또는 계속해서 긴장되고 놀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겪거나 트라우마를 겪는 동안 우리 뇌에서는 코르티솔(cortisol)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몸의 반응(reaction)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곧 싸우기(fight), 도망 혹은 회피하기(flight), 뇌가 얼어붙어 버리는 얼음뎡 상태로 행동(action)하거나 마비(numbsness)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호르몬들이 분비될 때, 사람은 기억을 잘 못하고(memory loss)집중할 수 없게 되기도 하며, 말을 잃기도(실어증) 한다. 이는 모

즈업되었다. 어린 시절 경험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한 남성으로부터 버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과 맞물려 필요 이상의 공포를 경험하게 했다. 때론 어린 아이가 되기도 하고, 때론 어른이 되어 맞서 싸우기도 하고, 어머니처럼 순응하기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겪어야 했던 슬픔과 분노가 그녀의 작품 속에 배어 있다. 한 남자에게 지배되기 보다 자신이 그 남자를 지배하고 싶은 욕구가 성적 욕망으로 표출되기도 하고, 실어증에 걸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여성은 트라우마를 경험할 때 남성과 뇌의 저장 방법에서 차이가 있다고 한다. 남성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은 적당히 가려둘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그 기억이 뇌의 사방에 튀어 저장된다. 마치 토마토 주스를 만들기 위해 믹서기에 토마토를 넣고 갈다가 갑자기

The traumatic experiences and moments of stress that people sometimes face in life can change the way their brain functions. When this happens, the thinking brain assesses their circumstances and determines whether or not they are in danger. People are born and grow, and along the way experience many things. Some people remember seemingly trivial events in unusual ways, or experience trauma, which remains with them as adults and results in great terror and fear for them. Here is a good example. The level or degree of fear people have of dogs is much higher or more intense when they are children as opposed to when they are adults. Moreover, if they encounter a dog as a child and feel threatened, this experience can be imprinted on their brain like a photo; later, they may even feel terrified by situations that loosely relate to that experience or subject, even if others may not be able to understand their feelings or the

to shut down; in other words, it produces a state consisting of extreme action or numbness, or some combination of the two. When cortisol is secreted, furthermore, people may suffer from memory loss and sometimes aphasia. These are all responses of the human brain to ensure survival.

One early spring day in March, a woman suffering from deep sadness and lethargy visited me. She said she had been treated by a doctor for aphasia a few months before. She talked about the happy days she had spent with a man--the dates they had had together and the happiness of their lives as they studied abroad together.

In the process of counseling her, I was able to get a glimpse into her unconscious. She had been through hard times as a child due to her father's unsuccessful business ventures and had at that time worried that she might even be abandoned by her parents as a result. This

connection those situations have with dogs. These feelings may be so extreme that people will try to cut themselves off from their personal relationships in order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images that they associate with dogs.

Although people show different levels of vulnerability to trauma, experiences like this often retard a person's emotional growth and lead to an obsession with the traces of the past that surface around the person, making it hard for him or her to live a normal life. People avoid stimuli that are, for them, related to the trauma they have experienced, become dull in their responses generally, or show other signs and symptoms of tension and shock. The reason people react this way is that the hormone cortisol is secreted by the human brain during times of stress or trauma. Cortisol enhances reactive behaviors such as fighting, escaping, or evading, and causes the brain

anxiety caused her to be fearful in nature, and the experience led her to alternate between extreme obedience and defiance in her interactions with the world.

Her father, the first man to come into her life, and this man she loved appeared in close-up in her life. The fear of rejection that she experienced as a child fused with a fear of being dumped by the man she loved, causing her a great deal of anxiety. The sadness and anger she felt over what she experienced, as a child and as an adult, as she stood and fought, and as she lapsed into obedience, as her mother before her had done, are reflected in her work. Her desire to rule men rather than be ruled by them, through the use of sexual desire and her own aphasia, is also reflected.

It is said that women's brains store information differently from men's in times of trauma. Men hide the things they do not want

기 뚜껑을 열면 토마토 파편이 사방에 튀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자신도 그 기억이 어디에 저장되어, 언제 튀어나올지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성은 방금 전 깔깔대고 웃었다 할지라도 어떤 자극에 의해 기억이 되살아나면 격하게 슬퍼하거나 분노할 수도 있다. 여성 자신도 왜 이 상황에서 분노하거나 슬퍼하는지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어 그 상황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단편적인 심리는 그녀의 작품 ‘진실된 이야기 2’ 시리즈에서 잘 드러난다. 그녀는 지금 이러한 과정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새로운 성장으로 다시 출발하고 있다. 비록 토마토 주스 파편 처럼 어떤 기억들이 그녀를 괴롭히겠지만 그 출발의 여정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5

to remember from themselves, while women hold onto the memories, which are then splashed across their brains. It is similar to the way in which bits of tomato splash everywhere if one places tomatoes in a blender and turns it on without a lid. This is why even women themselves cannot really tell what their memories of trauma are and when they will appear. It is also the reason that women can laugh out loud and then subsequently become extremely sad or angry when some trace of memory is brought forward. This situation can be difficult to deal with for these women because oftentimes even they cannot understand why they are angry or sad.

This kind of fragmented psyche appears in her series of art works titled ‘True Stories 2’. Through this collection, she re-discovers herself and starts to grow again. Although some memories may continue to hang upon her like pieces of tomato, they won't be able to stop

v

김경숙

상담정신치료전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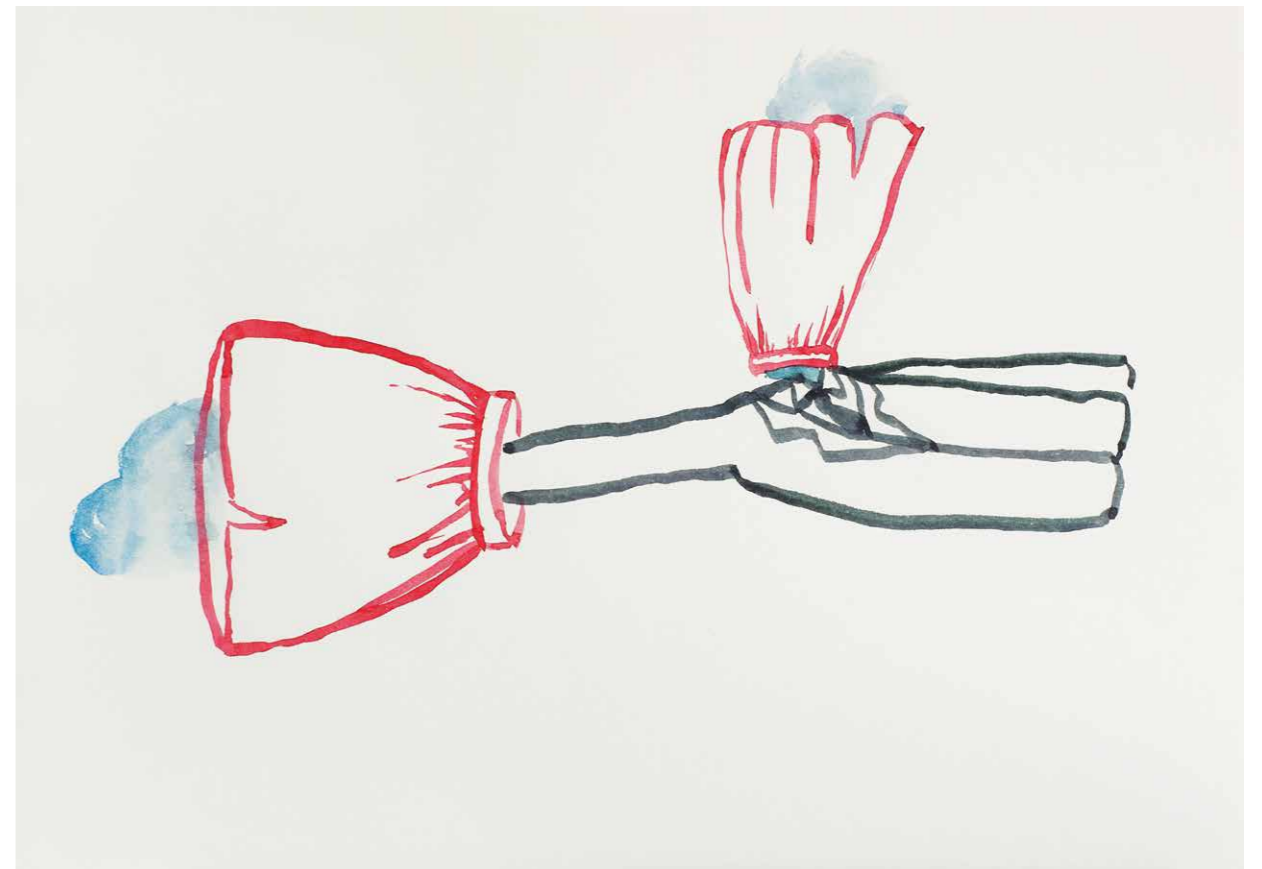
6

her from moving forward.

Kim Kyung-sook

Consultant Psychiatrist

vi



괜찮아요.
Not bad.



지금은 괜찮아요.
It's okay now.



괜찮아요.
Not too bad.



괜찮아요.
Not b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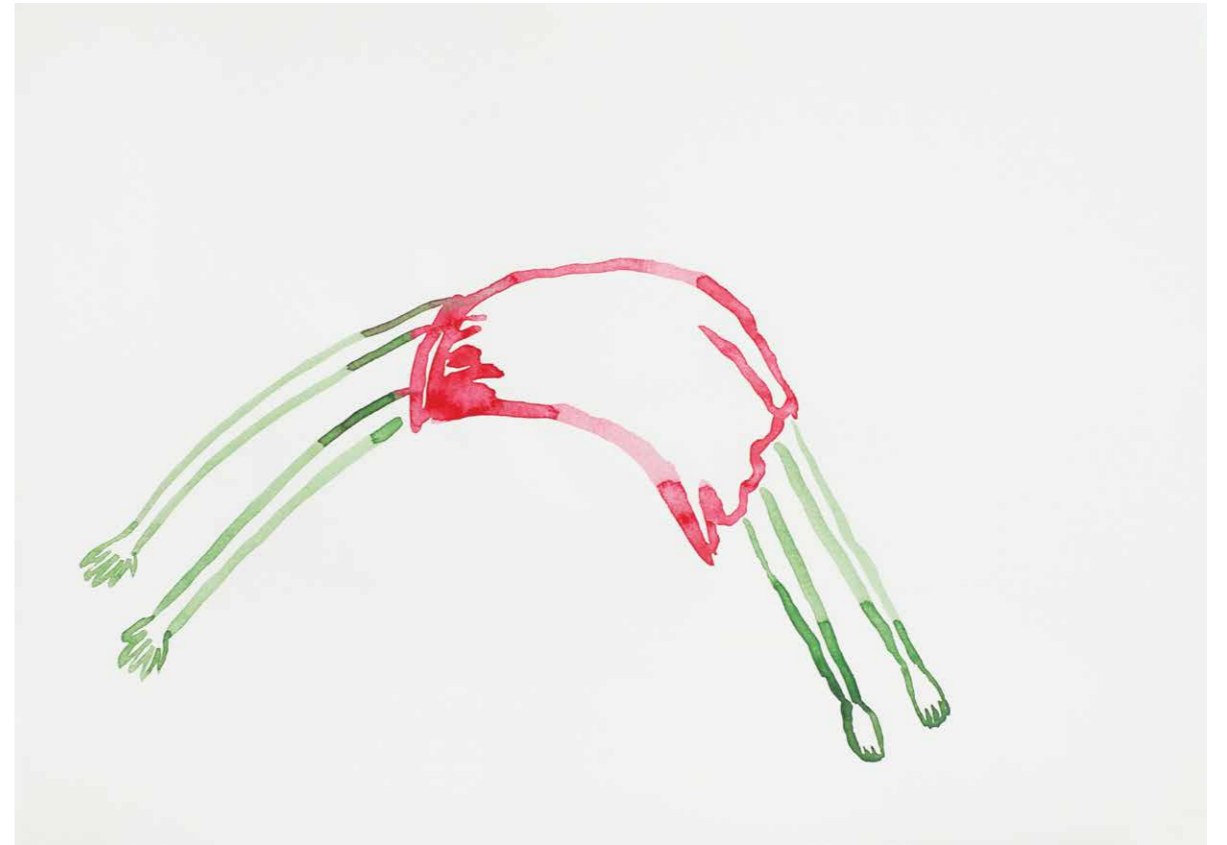


괜찮아요.
Not bad.



TS_6

괜찮아요.
Alright.



TS_7

네.
Y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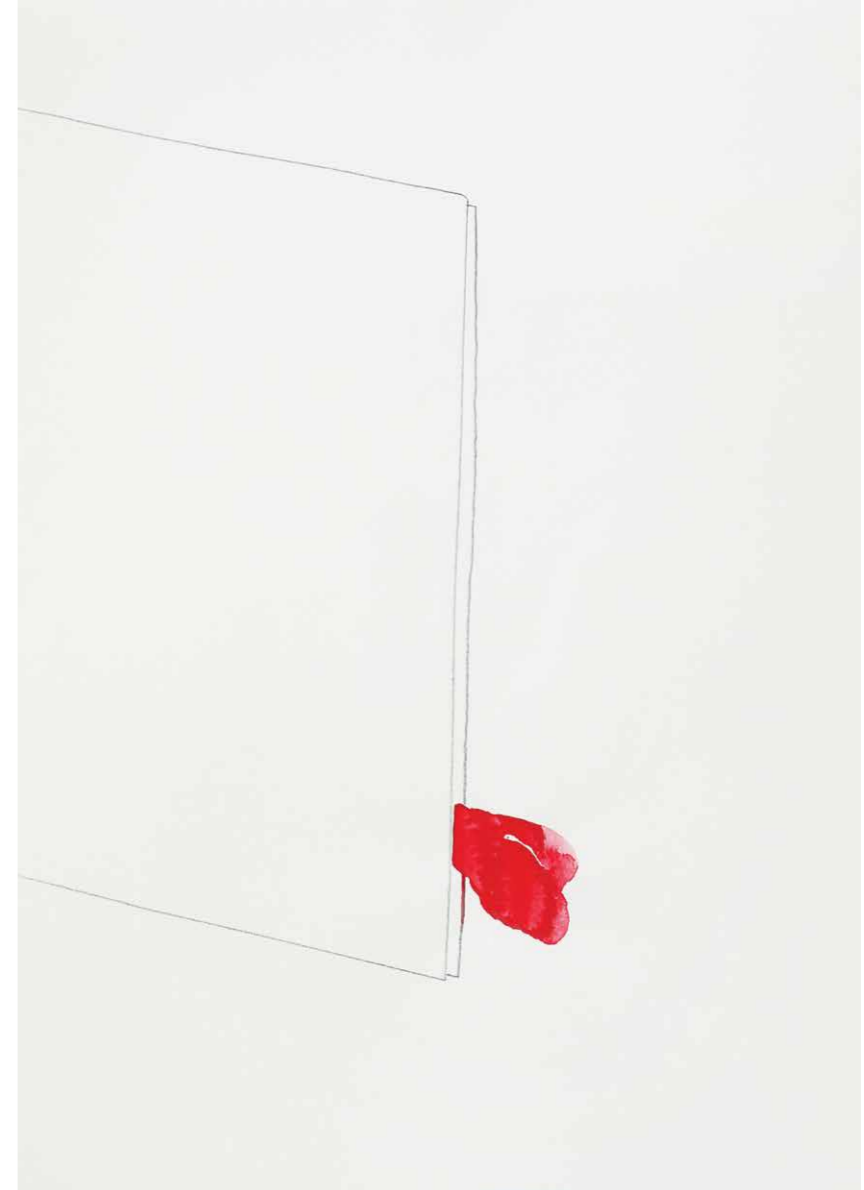
네, 괜찮아요.
Doing just fine.



괜찮아요.
I'm fine.



괜찮아요... 기분도 좋아요.
I am okay... pretty go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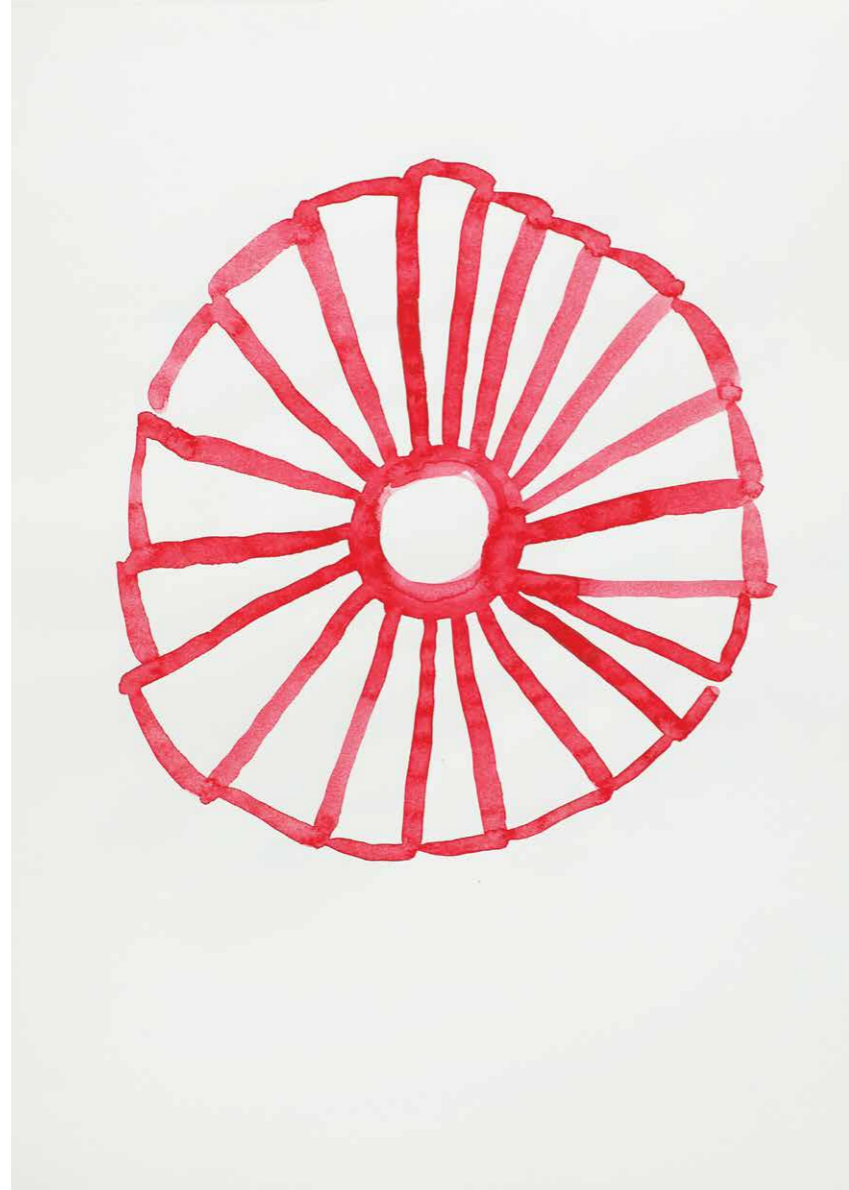
괜찮아요.
Not too b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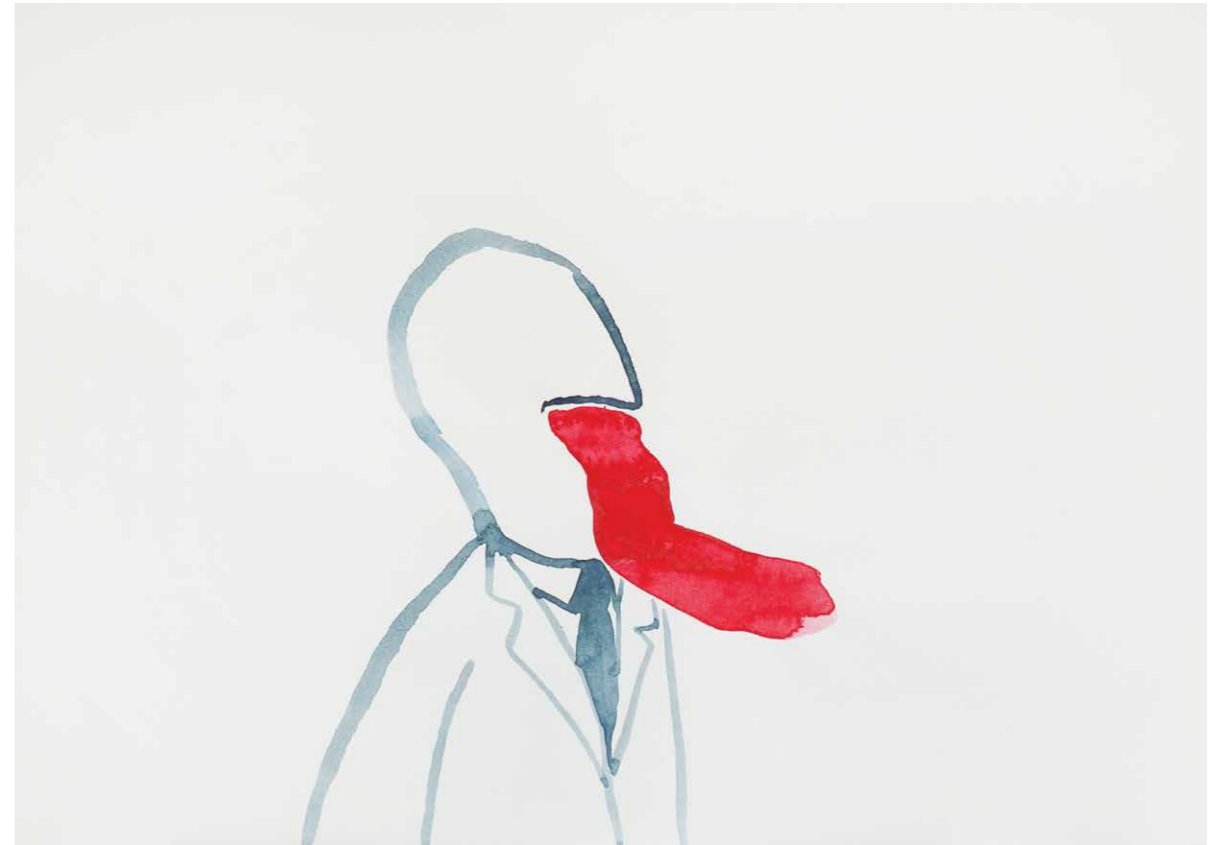
괜찮아요.
Not bad.



기분은 괜찮아요.
I feel fine.



괜찮아요.
Not bad.



괜찮아요.
Al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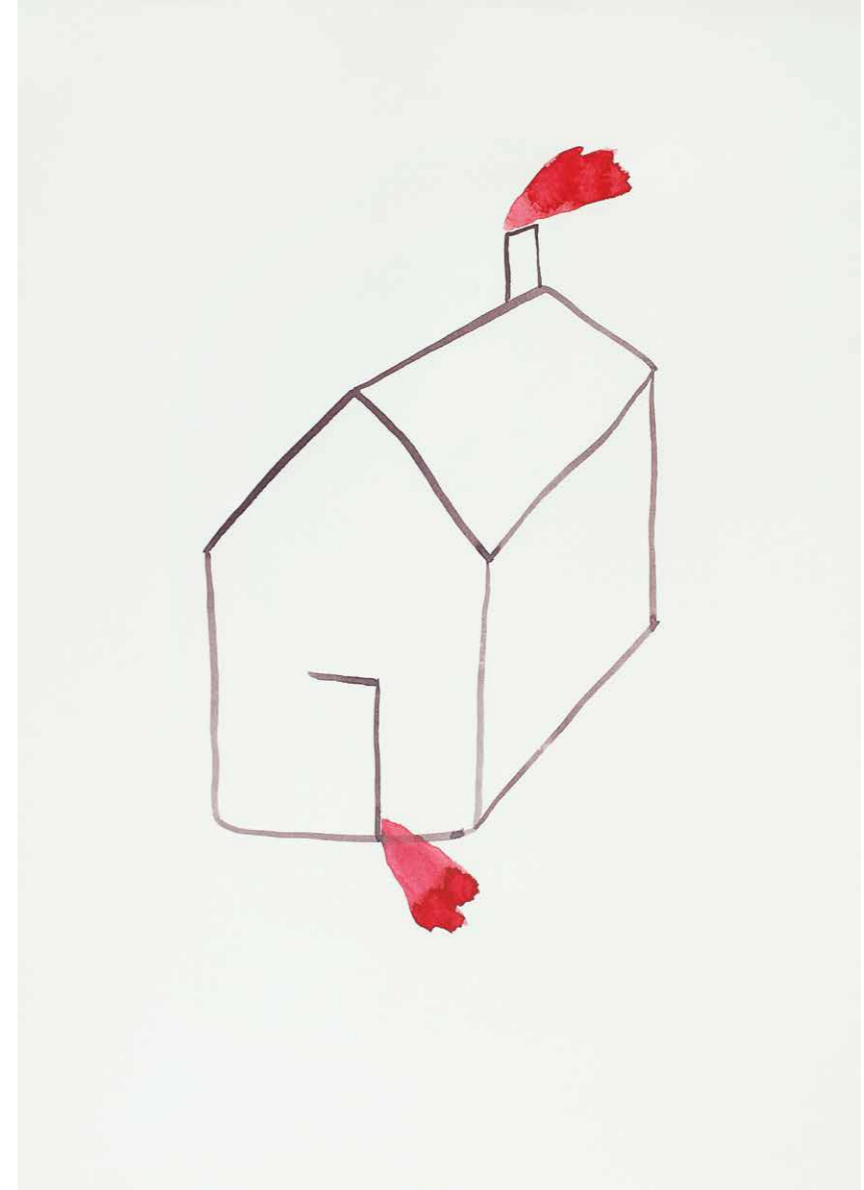
괜찮아요.
Not bad.



네, 괜찮아요. 불편한거 없어요.
Yeah, I'm good. Everything is alright.



괜찮아요.
Not too bad.



네.
Yes, I did.



네.
Yes.



괜찮아요.
Not bad.



네, 괜찮아요.
Yeah, I'm fine.



음...별로예요.
Well... Not so good.



음...
Well...



지금은 괜찮아요.
It's okay now.



네.
Yes, I did.



네.
Yes.



괜찮아요.
Not too bad.



네, 괜찮아요.
Yes, all right.



조영주
1978년 서울 출생
www.youngjoocho.com
chcho09@gmail.com

학력
2007 파리-세르지 국립 고등 미술학교 졸업
2003-2005 파리8대학 조형예술학과 석사과정 수학
2001 성균관대학교 미술교육 석사학과 졸업

경력
2013-2014 협업 전시기획 '할Hal프로젝트', 스페이스 매스, 서울
2010-2011 베를린 신사회 미술협회 (NGBK) 회원
2005-현재 국제미술그룹 글로벌 에일리언 (Global Alien) 회원

레지던시
2013 스페이스 매스 레지던스 프로그램, 서울
2010 경기창작센터 (GCC) 교환프로그램, 경기
2009 골드러쉬 예술가프로젝트 'Goldrausch Künstlerinnenprojekt art IT', 베를린

수상 및 수여
2013 서울시립미술관 Emerging Artists: 신진작가 전시지원 프로그램
2013 디딤돌 창작 준비금 수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011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예술교류기금
2010 독일 IFA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2009 덴마크 Arts Council 국제예술교류기금
2009 덴마크 아루스 지역문예기금

주요 개인전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코너아트스페이스, 서울
2013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2인전), 오산시립미술관 문화공장오산, 오산
2013 <My public affairs>, 스페이스 매스, 서울

주요 단체전
2012 <Rebus New York City>, Emily Harvey Foundation, 뉴욕
2012 CYAYAF 2012 (Contemporary Art & Young Artists Festival), Kintex, 일산
2011 <The end of the dream>, Micamoca Project e.V., 베를린
2011 <Sommer auf dem Balkon>, 갤러리 Antje Wachs, 베를린
2011 <희망과 실패: 아메리칸 드림의 재발견>, 갤러리 Homeland, 포틀랜드

2011 <희망과 실패: 아메리칸 드림의 재발견>, 갤러리 rum46, 아루스, 덴마크
2010 <Schnell & Schmutzig>, Lab-Montage기획, Markthalle IX, 베를린
2010 <Step toward Home>, 갤러리 Dam Stuhltrager, 베를린
2010 <Dé-synchronisation>, 대안공간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파리
2009 <Splendid Isolation-Goldrausch 2009>, Kunstraum Kreuzberg/Betanien, 베를린
2009 <Power of Spoken Words 'Import Export'>, 갤러리 rum 46, 아루스, 덴마크
2009 <미디어로서의 작가>, 갤러리 정미소, 서울
2009 <Camera Cartell — scenario 3>, Hedah 갤러리, 마스트리트, 네덜란드
2008 <Congress of Culture — Global Alien>, Kunstraum Kreuzberg/Betanien, 베를린
2007 <Freedom of Speech — "Global Alien TV">, 째지 스페이스, 서울
2006 <Made in Asia>, 제 5회 파리 국제 현대미술축제 'Nuit Blanche', Le Divan du Monde, 파리
2006 <Paris Tout Court>, 제 4회 파리 국제 단편영화제, Cinema L'Arlequin, 파리
2005 <Nouveau Cinema>, Cine Qua Non 협회 ESSEC 디지털 영화제, 파리
2005 <Le Visiosonic>, Kameleon 협회 현대미술축제, 세르지, 프랑스
2005 <Le Cinema Liberté>, 국제 디지털영상축제, Chaplin 아트 센터, 파리

세미나 및 워크숍
2013 몸,공간 그리고 놀이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공장오산, 오산
2013 현대미술매체의 역할과 의미,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디어 학과, 서울
2012 REBUS NEW YORK CITY Re-occupy Language in Urban Space, 복합문화공간 꿀&꿀풀, 서울
2011 Thank You Art Day (39art), A Space of Asia Art Archive (AAA), 홍콩
2011 베를린 훔볼트대학, 베를린
2010 Global Playground (예술가의 세계유랑) — 레지던시의 재조명, 경기창작센터, 경기
2009 Tongue 프로젝트, Tongue Laden, 베를린

출판물
2013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서울
2009 <Youngjoo Cho 'Splendid Isolation' — Goldrausch 2009>, 베를린

YOUNGJOO CHO
Born 1978
www.youngjoocho.com
chcho09@gmail.com

EDUCATIONAL QUALIFICATION
2007 MA Ecole Nationale Supérieure d'Arts de Paris-Cergy, France
2003-2005 Studies in Master of Fine Arts, University Paris8, France
2001 BA University Sungkyunkwan, Seoul, South Korea

ACTIVITIES
2013-2014 Hal Project, Collaborative curating project with Klega, Space Mass, Seoul
2010-2011 Member of NGBK (Neue Gesellschaft fuer Bildende Kunst e.V), Berlin
2005-2008 Member of the international art group 'Global Alien'

RESIDENCY
2013 Space Mass Residence program, Seoul
2010 Gyeonggi Creation Center, Gyeonggi
2009 Goldrausch Künstlerinnenprojekt art IT, Berlin

AWARDS & GRANTS
2013 Emerging Artists Program, Seoul Museum of Art
2013 Didimdol,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
2011 International exchange of arts and culture, Arts Council Korea
2010 ifa (Institut für Auslandsbeziehungen), Germany
2009 International exchange of arts, Danish Arts Council
2009 Aarhus Region Arts Fund

SELECTED SOLO/DUO EXHIBITIONS
2014 Mild depressive episode, Corner Art Space, Seoul
2013 Good job Good place Good time, Osan Museum of Art, Osan
2013 My public affairs, Space Mass, Seoul

SELECTED COLLECTIVE EXHIBITIONS
2012 Rebus New York City, Emily Harvey Foundation, New York
2012 CYAYAF 2012 (contemporary Art & Young Artists Festival), Kintex, Ilsan
2011 The end of the dream, Micamoca Project e.V., Berlin
2011 Sommer auf dem Balkon, Gallery Antje Wachs, Berlin
2011 Hope and failure, Gallery Homeland, Portland
2011 Hope and failure, rum46, Århus
2010 Schnell & Schmutzig, organized by Lab-Montage, Markthalle IX, Berlin
2010 Step toward Home, Dam Stuhltrager Gallery, Berlin
2010 Dé-synchronisation, Espace des Arts Sans Frontières, Paris
2009 Splendid Isolation-Goldrausch 2009, Kunstraum

Kreuzberg/Betanien, Berlin
2009 Power of Spoken Words 'Import Export', rum 46, Århus
2009 ARTIST AS A MEDIA, Gallery Jungmiso, Seoul
2009 CameraCartell-scenario 3, Hedah art space, Maastricht
2008 Congress of Culture-Global Alien, Kunstraum Kreuzberg/Betanien, Berlin
2007 Freedom of Speech — "Global Alien TV", Gallery Ssamsiespace, Seoul
2006 Made in Asia, 5th International Contemporary Art Festival 'Nuit Blanche', Le Divan du Monde, Paris
2006 Paris Tout Court, 4th International Short Cinema Festival of Paris, Paris
2005 Nouveau Cinema, Association Cine Qua Non - ESSEC, Paris
2005 Le Visiosonic, Festival of Contemporary Arts, Association Kameleon, Cergy
2005 Le Cinema Liberté, International Festival of Film Digital, Centre Culturel Le Chaplin

SEMINARS, WORKSHOPS & DISSCUTIONS
2013 Body, Space and Play: Saturday Arts workshop, Osan Museum of Art, Osan
2013 Contemporary arts media, Soongsil University, Seoul
2012 REBUS NEW YORK CITY Re-occupy Language in Urban Space, ggooll&ccuullpool, Seoul, Seoul
2011 Humboldt University, Berlin
2011 Thank You Art Day (39art), A Space of Asia Art Archive(AAA), Hongkong
2010 Global Playground, Gyeonggi Creation Center (GCC), Gyeonggi
2009 Project Tongue by Oda Projesi and Nadin Reschke, Tongue Laden, Berlin

BOOKS & CATALOGUE CONTRIBUTIONS
2013 Mild Depressive Episode, Seoul
2009 Youngjoo Cho 'Splendid Isolation' — Goldrausch 2009, Berlin

가볍게 우울한 에피소드

조영주 개인전
2013.10.12-11.2
코너아트스페이스

기획
조영주
www.youngjoocho.com

글
2012년 조영주 상담기록지 발췌문

디자인
홍은주, 김형재

인쇄
인타임

번역
최윤희, 에릭 보자르트

후원
서울시립미술관

Mild Depressive Episode

Youngjoo Cho solo exhibition
October 12 - November 2, 2013
Corner Art Space

Director
Youngjoo Cho
www.youngjoocho.com

Text
Excerpts from the consultation records of
sessions with Youngjoo Cho in 2012

Design
Eunjoo Hong & Hyungjae Kim

Printing
Intime

Translation
Yuni Choi, Eric Bozarth

Supported by
Seoul Museum of Art (SeMA)